

“ 마힌드라 회장과 인도에서 담판 짓는다 ”

쌍용차지부, ‘해고자 전원 복직, 금속노조 손해배상 철회, 인도 원정투쟁 승리 결의대회’ ...12월 1일 출발

금속노조와 쌍용자동차지부가 11월 24일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앞에서 ‘해고자 우선 복직, 금속노조 손해배상 철회, 인도 원정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가한 노조 조합원들과 가족, 연대투쟁 동지들은 한목소리로



“해고자 전원 복직, 금속노조 손해배상 철회, 국가폭력 진상규명, 한상균 위원장 석방” 등을 요구하고, 인도 원정투쟁 승리와 지지를 결의했다.

결의대회 여는 발언에 나선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함께 살지는 구호가 아니라 실천이다. 이번 인도 원정투쟁을 통해 130명 해고자가 복직하는 길이 열리길 바란다”라고 염원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해고자가 복직하는 날까지 금속노조가 지혜와 의지를 모을 것”이라고 결의했다.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투쟁사에서 “쌍용차 해고자는 이명박·박근혜 적폐 세력이 만든 사회의 참사다. 지난 정권은 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 기본권을 폭력으로 짓밟고 우리 기술을 외국 자본에 갖다

바쳤다”라고 비판했다.

김정은 복직자위원회 대표가 ‘한상균 위원장 옥중 편지’를 대신 읽었다. 한상균 위원장은 “자본은 노조가 함께 살자고 외칠 땐 산 자와 죽은 자 간에 대리전을 치르게 해서 재미를 보았고, 지금 공장 안 여론을 부추겨 복직 약속을 깨는 핑곗거리를 찾는다”라고 꾸짖었다. 한상균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는 노동존중 세상은 노동자의 권리가 사회의 상식으로 자리 잡을 때 가능하다”라며 지부의 인도 원정 투쟁 승리를 응원했다.

김득중 지부장이 쌍용차지부 조합원들과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결의대회에 참가한 조합원들에게 인사했다. 김득중 지부장은 “해고 9년째다. 복직을 약속받고 2년

을 기다렸다. 130명 해고자는 더는 기약 없이 기다릴 수 없다. 마힌드라 회장을 만나 담판을 짓겠다는 것이 우리 총회의 결의다”라고 밝혔다. 김득중 지부장은 이번 인도 원정투쟁을 “우리 금속, 쌍용차 노동자들의 새

로운 투쟁을 알리는 계기로 만들겠다”라고 결의를 밝혔다. 지부는 12월 1일 인도로 출발한다.

이날 결의대회에 금속노조 경기지부, 충남지부와 민주노총 조합원, 여러 연대단체가 참석했다. 충남지부는 인도 원정투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조합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투쟁기금을 전달했다. 전국의 금속노조 조합원들과 연대단체들이 보낸 70여 개의 해고자 복직 투쟁 지지 현수막을 공장 주변에 부착하며 결의대회를 마무리했다.

노조 쌍용자동차지부는 인도 원정투쟁 기간 청와대와 국회 앞 등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하고, 매주 목요일 저녁 평택공장 앞에서 촛불집회를 열 계획이다.

현대자동차지부 단체교섭 쟁취 투쟁 돌입

상집 철농, 협의·교육 중단, 쟁의 권한 지부장 위임 등 결정... “12월 초 다양한 파업 전술 전개”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는 11월 23일 8차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2017년 단체교섭 투쟁지침 결의 건을 확정했다.

지부 중앙쟁대위는 ▲상무집행위원회는 11월 28일부터 각 정문 출근투쟁과 철야농성 돌입 ▲각 사업부대의원회(지역위원회 포함)는 11월 27일부터 중식 홍보투쟁 실시 ▲중앙쟁대위와

확대 간부, 현장조직위원회는 알바투입과 불법 촉탁계약직 투입금지 적극 홍보와 조직 ▲ 11월 27일부터 각 부문별 노사협의 전면 중단(생산계획설명회 제외) ▲사측 주관 모든 교육 참여 중단(직무교육, 연령별 생애교육 제외) ▲합법 쟁의에 대한 사측 관리자의 개입, 부당노동행위 적발과 현장 탄압 도발 시 보복파업 돌입 ▲쟁대위는 파업권을 포함한 모든 권한을 지부장에게 위임키로 했다.

하부영 노조 현대자동차지부장은 “마우



리 시점에 와있는 2017년 단체교섭에서 수 차례 간담회나 회의를 통해 과거의 투쟁방식은 답습하지 않겠다”라고 이미 선언했다. 효과 없는 전면 파업은 지양한다는 뜻이다.

지부는 투쟁 대안으로 “우선 사측이 불법 운영하는 평일 아르바이트 사용을 금지하고, 단계를 높여 단협 44조(인원총원)와 2012년 11월 20일 노사가 합의한 촉탁직 합의를 근거로 투쟁하겠다”라고 말했다.

지부는 “평일 아르바이트 투입은 품질문제로 연결될 수 있는 사안이기에 불법 촉

탁직(아르바이트 포함) 등 비정규직 정규직화, 불법 촉탁계약직 문제를 사회에 알리고 시정과 정규직화 요구 투쟁을 적극 전개한다”라는 입장이다. 지부는 촉탁 계약직에 관해 ‘11월 8일부터 20일까지 12일 동안 불법 촉탁직 사용 현황을 조사한다’ 대의원 현장조사 지침을 내렸고, 자료를 취합했다.

노조 현대자동차지부는 34차 본교섭에서 사측의 태도가 변화없음을 확인했고, 12월 초를 기점으로 정책 총회 방식의 파업과 부분파업, 표적파업, 보복파업, 전면파업 등 다양한 전술을 준비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노사는 11월 23일 34차 본교섭에서 일부 사안에 관해 의견접근 했으나, 임금·성과급, 정년연장, 해고자 복직, 손배·고소고발 철회, 정비·모비스 실질임금 월급제 등 주요 미타결 쟁점은 합의하지 못했다.

“ 악법철폐, 노동적폐 청산이 국회 존재 이유”

민주노총, 5대 요구 실현·노동법 개정 촉구 국회 농성...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중단하라”

민주노총은 11월 23일 오후 국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5대 우선요구 실현과 노동약법 폐기, 노동개혁법안 입법 쟁취’ 를 위한 국회 앞 농성에 들어갔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에서 “ 손배가압류, 교섭창구 단일화, 타임오프제, 공공부문 필수 업무 유지제도는 노동 3권을 원천으로 가로막는 악법” 이라며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위한 노조법 개정에 국회가 적극 나서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5대 우선 요구 사항은

▲노조법 2조 개정 등 특수고용,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 3권 보장과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직접 고용 정규직화 ▲손배가압류 철회· 교섭창구 강제 단일화 폐지 ▲전교조, 공무원노조 법외노조 철회와 공공부문 해고자 복직 ▲행정해석 폐기와 특례업종 제도 폐지 등 장시간 노동근절 제도개선,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ILO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 등이다.

민주노총은 국회 앞 농성과 함께 각 정당 항의방문과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면담 등을 통해 다양한 압박과 집중투쟁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농성은 국회 앞 교통 섬에서 11월 23일부터 12월 8일까지 진행한다. 금속노조는 농성 첫날 대전충북지부를 시작으로 모든 지부가 돌아가며 농성에 참여한다.